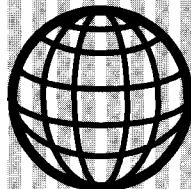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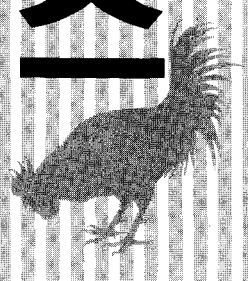


# WORLD POULTRY NEWS



## 해외양계신문



### 미국

#### 닭 항생물질 대체법 개발

미국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의 동물학자인 마크 쿡 박사팀은 최근 새로운 항생물질 대체법을 개발하였다. 그는 면역계를 강화시켜주는 항체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닭 등 가축의 성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항생물질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닭에 대한 쿡박사의 연구는 일반 항생물질이 실제로는 닭의 성장을 촉진시키지 않음을 강조하고 질병과 싸우는 면역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장에 지장이 없는 특수분자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쿡박사는 이 화합물이 닭의 사료에 첨가되면 닭은 면역물질이 첨가된 만큼 빠른 성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ST)

### 일본

#### 10년후 식품 자급률 발표

일본 농무성은 앞으로 10년후인 2010년의 식품 자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양계산물의 경우 계란의 자급률이 1997년 96%(257만톤)이던 것이 2010년에는 98%(123만톤)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닭고기는 68%에서 73%로 상향조정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육수수의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함은 물론 국내 양계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세워진 계획으로 보았다. 참고로 타 육류 및 축산물의 경우 우유 75%, 쇠고기는 38%, 돼지고기 73%로 자급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鷄鳴新聞)

### 독일

#### 케이지 사육 금지로 800만수 감소

유럽지역의 가축복지 정책에 따른 닭 케이지 사육 금지로 인해 독일의 사육수수가 20%, 즉 800만수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지 사육에 따른 위생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종전의 1수당 45cm<sup>2</sup>의 사육면적을 550cm<sup>2</sup>로 확대시킨 결과 독일의 케이지 사육 비율은 1997년도에 89.7%로 나타났다.(鶏の研究)

### 태국

#### 가금육, 계란 소비 증가 전망

미 농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태국의 가금육 및 계란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번의 증가예측은 타이의 경제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소비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금육과 계란의 수출물량도 유럽연합의 수출허용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료원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생산량의 증가와 동시에 생산비용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CH)

### 필리핀

#### 닭고기 부분육에 대한 수입금지계획 발표

필리핀 농무부장관은 최근 닭고기 부분육에 대한 수입금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닭고기수입은 가트와 UR합의에 근거하여 지난 1996년부터 최소수입할당량(MAV) 및 관세화를 정하였고, 올해의 닭고기 MAV는 18,790톤으로 작년에 비해 1,044톤이 증가되었으며, MAV 범위내의 관세는 45%, 범위 이외는 60%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필리핀의 닭고기수입량이 급증하여 1997년 2,770톤, 1998년 3,655톤, 지난해는 24,701톤으로 MAV한도

를 넘어 수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국내소매가격이 생산원가수준과 차이가 없어 국내생산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필리핀 농무부는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허가되고 있는 면세점에서의 수입판매를 작년 9월부터 1개월 당 830톤으로 제한한 바 있으며 결국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타국들과의 외교관계 등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H)

### 쿠바

#### 계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쿠바 농림부에 의하면 지난해 쿠바의 계란생산량은 1998년에 비해 17%나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계란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혀 앞으로 양계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WP)

### 이란

#### 첫 번째 양계박람회 개최

이란은 지난해 11월 수도인 테헤란에서 사상 처음으로 양계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114개 업체가 참가한 박람회에서는 이란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이란의 양계산업 발전 현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박람회는 무엇보다 양계산물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인식을 높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으며 양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였다고 전해졌다.(PI)